



제5회 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변화된 문화지형도와 공공성
_공공예술과 대중문화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PROGRAM BOOK

Session 2

확장된 공공성과 대중문화의 가능성

Expanded Publicness and Creative Consumer Culture

Speaker

이대형

Lee Dae-Hyung

•
한국 | CONNECT BTS 아트디렉터

Korea | Art director, CONNECT BTS.



-
- 前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
 -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 the former Art director, Hyundai motors.
 - Artistic Director, Korean Pavilion of Venice Biennale 2017

경험경제 시대 예술의 공공성 - CONNECT, BTS 공공미술의 확장

CONNECT BTS, An Expansion of Public Art

이대형

Lee Dae-Hyung

예술은 철학과 사상, 이성과 감성, 역사와 사회적 가치로 가득한 보물섬입니다. 그러나 그 섬이 고립되어 있다면? 혹은 그 섬에 접근하는 권한을 소수의 특징인이 독점하고 있다면? 암울하고 슬픈 상상입니다. 이제 예술의 공공성은 예술경험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에 주목해야 합니다.

1967년 조지 케페스(Gyorgy Kepes)는 MIT에 “선형 비주얼스터디 센터”를 론칭하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예술적 미디어로 흡수하고; 예술가+과학자+엔지니어 그리고 산업계와 서로 협업하는; 그래서 작품의 사이즈가 건축적, 도시적 규모로 커질 수 있고; 모든 감각에 대응하는 미디어 아트; 구름, 물, 빛, 날씨 등 자연적 변화, 과정을 반영한 미디어 아트; 관객의 참여 방식이 예술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새로운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지난 여름, 빅히트 관계자분들과 예술과 사회, 예술과 인간, 예술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음악계와 미술계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르, 지역, 세대의 경계를 초월해 서로 협업하고, 연결하며, 형식의 제약을 넘어,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미술에 대한 공통된 고민의 결과 5개 도시의 22명의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CONNECT BTS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초연결 시대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관심사의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연결되는 동안, 다른 생각과 취향을 가진 이웃, 심지어 가족과의 대화는 단절되는 현실을 목격합니다. 이 같은 현실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와 이분법적 사고, 편 가르기 등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만들어지는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개인은 고립되고, 소외됩니다. 예술의 역할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서로 다른 역사, 문화,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CONNECT, BTS는 음악과 현대미술 사이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식적인, 장르적 결합이 아닌 시대 가치를 어떻게 읽어 내고, 그 속에서 예술은 어떤 역할과 실천을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주변부의 작은 부분까지 주목하는 BTS의 철학이 장르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가치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CONNECT, BTS는 5개 도시 연결합니다. 여기에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기획하며, 국제비엔날레와 환경문제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거대한 글로벌 전시를 추진하기 위해 디젤 화물선의 바다오염, 전시해체 후 어김없이 발생하는 폐쓰레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전시의 주제를 글로벌 클라우드에 띄우고, 각 지역/도시/국가에서 전시를 추진하고 철학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디젤에 의한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고, 지역 공동체까지 예술창작과 경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습니다. CONNECT, BTS가 5개 도시에서 펼쳐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5개 도시를 연결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흥미롭고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상상 이상의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5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를 연결하기 위한 수면부족으로 인해 체력적인 한계를 테스트 했고, 5개 도시의 서로 다른 제도, 행정, 법규를 연결하기 위해서 써내려간 이메일과 각종 계약서는 전시 콘텐츠 기획 이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했던 점은 유럽의 주류 문화예술계가 가지고 있는 K pop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몰이해,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BTS의 유엔 연설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세계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 문학, 신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방탄소년단과의 화상 인터뷰 이후 큐레이터들과 작가들이 모두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 그리고 질문의 깊이에 참여 작가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작가들의 다양한 면면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면서 우려했던 냉소는 호평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 1200여개의 외신에서 CONNECT BTS의 소식을 타진했습니다.

주요 매체에서 호평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초기부터 음악은 미술의 콘텍스트(context)가 되어주고, 역으로 미술은 음악의 콘텍스트가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의 콘텐츠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고 독립성을 존중해 준다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야만 이번 협업이 단순 브랜딩이 아닌 예술의 공익적 역할,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문화현상으로서 사

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다양한 예술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참여작가들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의 깊이에, 참여 미술관과 작가들은 방탄소년단이 이번 프로젝트 내내 보여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놀라워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참여작가들 사이에 오간 편지가 소중한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참여작가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표현방식, 경험방식,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 젠더 등의 균형에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의 방탄소년단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금 방탄소년단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 즉 시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추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더 진정성 있게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 타이틀 CONNECT가 말해 주듯이 서로 다른 가치, 문화, 장르, 예술, 사람을 연결한 한다는 의미로 동질성이 아닌 서로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그것들이 잘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 같은 팬데믹시대 메시지는 글로벌 디지털 구름 위에 띄우고 행동은 지역 공동체와 연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미술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창의적인 협업과정 속에서 그 해법이 나옵니다. 기억할 명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첨단 테크놀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트 앤 테크놀로지 협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토마스 사라세노(Tomás Saraceno)의 “에어로센 Aerocene”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에어로센은 예술, 과학기술, 그리고 환경 운동의 교차점에서 지역 원주민부터 여성 비행사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 철학자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화석 연료, 태양 전지판, 배터리, 그리고 열기구에 사용되는 헬륨조차 없이 우리가 숨 쉬는 대기의 공기와 하늘의 태양 에너지만으로 인

간이 날아오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아르헨티나의 소금사막 살리나스 그란데스 지역의 33개 지역 공동체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함께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에어로센 파차”는 철학적으로는 인류세의 문제를, 과학적으로는 에너지문제를,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접근성’은 물리적인 접근성을 넘어선 철학적으로 시대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성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감능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본질은 인간, 인간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이용해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서 새로운 의미와 경험을 만들어 낼 것인가란 근본적인 질문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협업 중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의미 있는 사례는 기술과 기술의 결합이 아닌 기술과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가 협업하는 경우입니다. 예술의 역할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서로 다른 역사, 문화,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식적인, 장르적 결합이 아닌 시대 가치를 어떻게 읽어 내고, 그 속에서 예술과 테크놀로지는 어떤 역할과 실천을 해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rt is a treasure island which is full of philosophy and ideas, reason and emotion, history and social values but what if that island is isolated? Or what if a few specific people monopolize access to the island? It's a gloomy and sad imagination. Now, the publicness of art means access to the art experience therefore, many artists have to pay attention to this concern, 'how to expand the space and time that art can exist.'

In 1967, Gyorgy Kepes launched the "the Center for Advanced Visual Studies" at MIT, and set up a new vision which is: "absorbing new technology into an artistic medium; collaborating with artists, scientists, engineers and industry; so that the size of the work can grow on an architectural, urban scale; media art that responds to all senses; media art reflecting natural changes and processes such as clouds, water, light, and weather; the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in which the audience's participation is accepted as a form of art."

Last summer, I talked with Big Hit officials about various things such as art and society, art and human beings, art and the future, and there was a lot of consensus between the music and art circles. As a result of the shared concern for public art that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genres, regions, and generations to collaborate, connect, beyond the constraints of form, and be easily access by anyone, the CONNECT BTS project, which connects 22 artists from five cities, was launched.

In the hyper-connected world brought by digital technology, we see that while connecting with people of similar ideas and interests on the other side of the globe, conversations with neighbors and even family bearing different ideas and tastes are cut off. This reality has become a good condition for creating invisible barriers among people, such as lack of empathy for others, dichotomous thinking, and dividing sides. In this reality, individuals with different ideas are isolated and alienated. I thought about the social and public role of art, recalling that the role of art connects people across borders and generations, and also enabl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ifferent histories, cultures, and human beings.

So Project CONNECT BTS asks the question, how to read the values of the times, not just the physical, formal, and genre combinations that are visible

between music and contemporary art but also what roles and practices art will play in them. I think BTS' philosophy of respecting the value of diversity, not uniformity, and paying attention to even a small part of the surrounding is only different in genre and expression but in its essence,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value pursued by contemporary art.

CONNECT, BTS connects 5 cities; there's a reason behind that. When I was planning the Korean Pavilion for the 2017 Venice Biennale, I thought about the problem between the International Biennale and environmental issues. I also witnessed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sea pollution by diesel cargo ships and waste generated after the dismantling of the exhibition in order to promote a huge global exhibition in one place. So I thought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bring the theme of the exhibition onto the global cloud, promote the exhibition in each region, city, country, and connect it on a philosophical and communicative level. That way we can reduce marine pollution caused by unnecessary diesel, and, I hope, that even the local community can be the main character of art creation and experience. That's why CONNECT BTS took place in five cities.

However, even though the idea of connecting the five cities was conceptually interesting and attractive, in reality, the difficulties that followed were beyond imagination. The lack of sleep to connect five different time zones tested physical limitations, the emails and contracts written to connect different systems,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in five cities left a vast amount of data beyond planning for exhibition content.

However, above all, I was concerned about the cynical view, lack of understanding, and prejudice towards K pop in the mainstream culture and arts community in Europe.

In order to overcome the prejudice, we showed a video of BTS' speech at the United Nations and explained the philosophy, literature, and myths that their world of music embodies. Then, after the video interview with BTS, both curators and artists became enthusiastic supporters of BTS. Participating artists were all amazed by BTS' understanding and curiosity of art, and depth of questions. As

the purpose and goal of the project, and the artists' various facets were introduced in detail, the cynicism that I was worried about turned into a favorable review. As a result, more than 1,200 foreign media outlets around the world have reported on CONNECT BTS.

The reason for the favorable comments in the major media was simple.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planning, music became the context of art, art became the context of music, and as a basic principle both were to respect, without any interference, the other's context. Only then did I believe that this collaboration, unlike simple branding, can give people various true artistic experiences as a cultural phenomenon that considers the public interest's role and social role of art, and we boldly put it into action. BTS was amazed by the artists' diverse ways of expression and the depth of the philosophical messages they contained, likewise, the participating art galleries and artists were amazed by BTS's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and art they had shown throughout the project. The letters exchanged between BTS and the participating artists remain a valuable vestige.

In selecting participating artists, we also focused on their way of expression, the way of experience, the variety of topics, and, if possible, the balance of region, gender, etc. And instead of focusing, if possible, on the identity of the BTS today, we tried to focus on where they are looking: the values of the times. It was also a principle to implement the value of diversity that BTS pursues visually, with more sincerity. As the title of the project, CONNECT, suggests, we tried to focus not on homogeneity but on differences and make them stand out more, in terms of connecting different values, cultures, genres, arts, and people.

In this Pandemic era today, we need planning to upload the message onto the global digital cloud and practice in solidarity with the local community. In the process, a new form of public art can be created and in many cases, the solution comes from creative collaboration. A proposition to remember is that moving people's heart is never advanced technology. One of the most successful best cases for art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is the "Aerocene" project by Tomás Saraceno, a world-renowned installation artist from Argentina. Aerocene

is a project that brings together local natives, female pilots, and world-class scientists and philosophers at the intersection of art,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movements. It proved that humans can fly only with the air we breathe and solar energy in the sky, without any fossil fuels, solar panels, batteries, and even helium used in hot air balloons. Especially in 2020, Aerosen Pacha, which invites representatives from 33 communities in the Salinas Grandes region of Argentina to raise the issue of local water shortages, deals with the problem of Anthropocene in philosophy, the problem of energy in science, and the survival of the community in society. In conclusion, the 'accessibility' of public art should be based on, beyond physical access, insight that can provide the philosophical value of the times, inclusiveness, and empathy from it.

After all, the essence is to understand the various values of humans and human society. We need to be able to think abou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and how we're going to interpret it and create new meanings and experiences, not technology itself but in using technology. Among many collaborations, a meaningful case that is remembered by people is not a combination of technology and technology, but a collaboration between technology and the various values surrounding human beings. Considering that the role of art is to connect people across borders and generations, and to enabl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ifferent histories, cultures, and human beings, one must be constantly concerned about the social and public role of art. We need to be able to read the values of the times, more than just the physical, formal, and genre combinations that are visible, and ask what roles and practices art and technology should play in them.